

중국 대외교역정책의 전환과 지역별 대외교역 동향

김부용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박진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jhpak@kiep.go.kr, Tel: 3460-1285)

이상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shlee2@kiep.go.kr, Tel: 3460-1287)



차 례 ●●●

1. 중국 대외교역정책의 전환
2. 지역별 대외교역 동향
3. 평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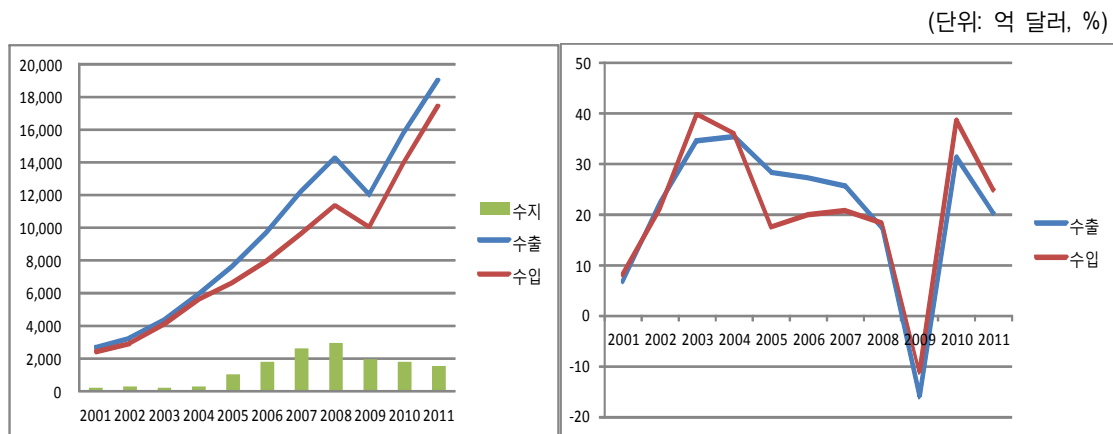
주요 내용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대외교역정책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대외교역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음.
 - 중국의 대외교역정책 전환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중국의 대외교역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대외교역의 양적인 성장을 적절히 유지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 수출상품 브랜드 육성 및 품질 향상 △ 일반무역 강화 △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와 중서부 이전 △ 서비스 무역 확대 △ 수입확대를 통한 무역균형 추구 △ 신흥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외교역정책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별 대외교역 성장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고, 중서부지역의 무역 증가율이 동부 연해지역을 앞지르고 있음.
 - 산업이전에 따라 무역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수출제품이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며, 신흥시장과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대외교역정책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함.
 - 가공무역을 비롯한 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 기회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으로의 진출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접근 전략으로 수입 확대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함.
 - 한편 글로벌 수출시장에서는 한·중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함.

1. 중국 대외교역정책의 전환

- 중국은 무역대국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외교역은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 중국은 WTO 가입 후 대외교역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자 제2의 수입국이 되었으며, 무역흑자도 급증했음(그림 1 참고).¹⁾
-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의 대폭 증가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이 빈번해졌으며, 위안화 절상에 대한 대(對)중국 압박이 커졌음.
- 또한 높은 대외의존도²⁾로 인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연해지역의 경제성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국제 경기변동에 취약한 면모를 드러냈음.
- 또한 중국의 무역구조를 보면 2008년부터 일반무역이 가공무역을 초과하긴 했으나, 가공무역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³⁾
 - 가공무역은 인건비 상승 등 요소비용 상승에 취약하며, 기술유입 및 이전의 효과가 크지 않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이 같은 대외교역의 문제점들이 지적됨에 따라 대외교역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그림 1. 중국의 수출입과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상무부.

- 1) 중국의 무역흑자는 2008년 3천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2011년에는 1,550억 달러에 그침.
- 2) 대외의존도는 2006년 65.2%로 정점을 찍은 후 차츰 감소세로 접어들어 2011년에는 49.9%로 줄어들었음.
- 3)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7년까지 가공무역과 일반무역 비중은 각각 45.4%와 44.5%로 가공무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후 차츰 일반무역의 비중이 더 높아져 2011년에는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이 각각 35.8%와 52.8%를 차지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중국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조치들을 내놓은 바 있으며, 12·5규획이 시작된 2011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역정책 전환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05년에 철광석, 선철, 폐강, 강재원료, 희토류원광, 인광석 등 29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3년간 연평균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에 포함시켰음.
- 최근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단순히 가공무역의 비중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외교역의 양적인 성장을 적절히 유지하는 한편, 질적인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같은 목표를 위하여 △ 수출상품 브랜드 육성 및 품질 향상 △ 일반무역 강화 △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와 중서부 이전 △ 서비스 무역 확대 △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균형 유지 △ 신흥시장 개척 등의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임(표 1 참고).

표 1. 중국 정부의 주요 문건에 나타난 대외교역 관련 내용

문건명	주요 내용
「중서부지역 산업이전 가이드라인 (國務院關於中西部地區承接產業轉移的指導意見) (2010. 8)	- 가공무역 발전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개선하여 연해지역의 가공무역을 적극 유치 - 조세, 금융, 토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 제공 -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및 보세구역 설립, 국경지역 국경경제협력구역 설립 장려
「12·5규획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个五年規劃) (2011. 3)	- 노동집약형 수출상품의 품질 향상 및 전기기계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수출 확대 - 가공무역을 단순 조립에서 R&D, 디자인, 핵심부품 제조, 물류 등의 체인으로 확대 - 경상수지 흑자를 감축하여 무역수지 개선 - 선진기술, 핵심부품,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상품 및 소비재 수입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
「2011년 정부업무보고 (2011年政府工作報告) (2011. 3)	- 대외교역의 안정적인 발전 유지 - 자가브랜드(OBM) 제품 수출 확대 - 서비스 무역과 서비스 아웃소싱 발전 및 서비스 무역 비중 확대 -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고 무역마찰을 줄임: 신흥국 및 중국이 무역흑자를 실현하는 국가로부터 수입 확대
「2012년 정부업무보고 (2012年政府工作報告) (2012. 3)	- 대외교역의 안정적인 발전 유지: 수출환급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역용자와 신용보험, 외환 등 분야의 서비스 확대 - 수출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가 브랜드를 육성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 가공무역의 업그레이드와 중서부지역으로의 이전 추진 - 유럽, 미국 등의 전통시장 유지 및 신흥시장 개척 - 수입정책 개선으로 수출입 균형 발전 추구
「무역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關於加快轉變外貿發展方式的指導意見) (2012. 2)	- 수출상품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 주력 상품 교역 유지, 지적재산권과 브랜드, 고부가가치 상품 교역에 주력 - 기존 시장 유지 및 신흥시장 개척 - 일반무역 강화 및 가공무역 향상 - 지역간 대외교역 배치 구조조정 - 서비스 무역 촉진 - 무역균형 추구

2. 지역별 대외교역 동향

가. 중서부지역의 빠른 무역 증가세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속히 하락했던 중국의 무역액은 2010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빠름.
 - 동부 연해지역의 무역액은 전반적으로 회복 속도가 느리나, 중서부지역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중국 전체 대외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둥, 장쑤, 상하이 세 연해지역의 2011년 무역액 증가율은 각각 17.4%, 16.6%, 18.6%로 금융위기 발생 전인 2007년보다 낮은 수준이며,⁴⁾ 중국 전체 평균(21.5%)에도 많이 못 미침(부표 1 참고).
 - 이에 반해 중부지역의 허난과 서부지역의 충칭, 쓰촨, 광시는 2011년 무역액 증가율이 각각 48.2%, 78.3%, 107%, 66.7%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 전체 무역량에서 동부 연해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서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전체 무역액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곳은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이나, 그 비중은 2007년 88%에서 2011년 85.8%로 2.2%포인트 줄어들었음(표 2 참고).
 - 특히 광둥성의 비중이 30%에서 26.7%로 감소폭이 컸음.
 - 중부와 서부 각 지역 무역액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1% 이하로 연해지역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나, 2007~11년 기간 각각 0.9%포인트와 1.2%포인트 증가하였음.
 - 2007년에 비해 비중이 크게 확대된 곳은 허난, 장시, 쓰촨, 충칭, 광시이며, 특히 쓰촨의 경우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처음으로 1%를 넘어섬.

표 2. 4개 권역의 무역 비중 추이

(단위: %)

권역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동부	88.0	86.7	87.7	87.2	85.8
중부	3.7	4.3	3.8	4.0	4.6
서부	3.9	4.5	4.3	4.3	5.1
동북부	4.4	4.5	4.3	4.4	4.5

주: 동부에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둥, 하이난이, 중부에는 산시, 허난,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가, 서부에는 네이멍구, 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베트,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이가, 동북부에는 라오닝, 지린, 헤이룽장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협회에서 정리하여 계산.

- 4)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세 지역의 무역액 증가율은 2007년 기준 각각 20.4%, 24.6%, 23.9%로, 중국 전체 평균(23.5%)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음.

나. 산업이전에 따른 무역구조 업그레이드

- 중국정부의 산업이전 정책에 따라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이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무역이 활성화되고 동부지역의 무역구조가 업그레이드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산업분포 불균형을 해소하며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내륙지역으로 산업이전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2010년에는 국무원이 「중서부지역 산업이전에 관한 지도의견(國務院關於中西部地區承接產業轉移的指導意見)」(이하 「의견」)을 발표하여 산업이전을 가속화함.
 - 본 「의견」에서는 중서부지역으로 노동집약적 산업, 농산물 가공업, 장비제조업, 가공무역 등의 산업이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교통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개선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장려하는 등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동부에서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이 증가하였으며, 중서부지역의 수출입 역시 크게 증가함.
 - 폭스콘은 2010년 선전(深圳)의 일부 생산 라인을 충칭, 허난 정저우(鄭州) 등지로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대형기업의 이전은 해당 지역의 수출입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 허난의 경우 2011년 수출입액이 300억 달러로 전례 없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이 중 폭스콘의 수출입액이 94억 7천만 달러로 허난 전체 수출입액의 약 30%를 차지함.⁵⁾
 - 산업이전은 특히 가공무역을 크게 증진시켜, 2011년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 수출입액은 2010년보다 78.3% 상승한 800억 달러에 달함.⁶⁾
- 산업이전은 동시에 동부 연해지역의 무역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음.
 - 2011년 동부 연해 각 지역의 일반무역 수출 증가율이 가공무역 수출 증가율을 모두 넘어섰으며, 가공무역의 대표지역인 광둥은 2011년 처음으로 일반무역 수출이 전체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였음.⁷⁾

다. 수출 제품 고부가가치화

- 중국이 기술혁신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함에 따라 수출제품도 고부가가치화되고 있으며, 자가 브랜드가 점차 육성되고 있음.
- 대부분 지역의 전기기계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비중이 30~70%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 증가

5) 中國新聞網(2012. 2. 29), 「河南2011年外貿額破300億美元 富士康占三成」.

6) 新浪網(2012. 1. 20), 「於廣州: 海關政策將繼續向中西部地區傾斜」.

7) 지역별 201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

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 중서부지역의 경우 전기기계제품과 첨단기술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해당 지역 전체 수출 증가율보다 높음(표 3 참고).
- 이는 폭스콘과 같은 대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이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다소 기여한 증거로 볼 수 있음.

표 3. 주요 지역의 무역 비중 추이

(단위: %)

권역	전기기계제품			첨단기술제품		
	비중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비중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베이징	59.5	3.4 (6.5)		29.8	-9.0 (6.5)	
톈진	69.2			39.0		
상하이	70.7	13.2 (16.0)		44.5	11.0 (16.0)	
장쑤	66.5			41.4		
저장	42.6	16.4 (19.9)	10.7	7.2	5.4 (19.9)	
광둥	67.6	14.0 (17.4)	10.3	37.1	12.7 (17.4)	11.2
허난	43.7	226.8 (82.7)		29.7	830.0 (82.7)	
후난	36.0	32.1 (24.4)	33.7	8.0	38.3 (24.4)	58.0
충칭	66.5	163.7 (160.0)	132.6	29.7	641.6 (160.0)	307.9
쓰촨	58.7			39.9		

주: () 안의 수치는 해당 지역 총수출 증가율임.
자료: 지역별 2011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

- 베이징, 광둥 등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자가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1년 베이징의 자가 브랜드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921개에 달했으며, 이 기업들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4.6% 증가하여 베이징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였음.⁸⁾
- 2011년 광둥의 OBM 방식 가공무역 수출은 광둥 전체 가공무역 수출의 40%를 차지함.⁹⁾

라. 신흥시장과의 무역 확대

- 중국 각 지역에서는 미국, EU, 일본, 한국 등 전통시장과 안정적인 무역을 지속해나가는 한편, 아세안,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음.

8) 北京日報(2012. 1. 25), 「2011年北京進出口增長近三成」.

9) 2012년 광둥성 정부업무보고.

- 2011년 푸젠의 싼훙시장에 대한 수출액이 처음으로 대선진국 수출액을 넘어서는 등, 중국 각 지역과 싼훙시장 간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음.
- 2011년 기준 장쑤는 남미와 러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톈진은 아세안, 러시아, 호주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011년 산둥성의 최대 수입국은 아세안이었으며, 광둥성은 한국 다음으로 러시아와의 무역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카자흐스탄과 같이 무역액 증가율이 아직 높지 않은 변경 국가들과의 무역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음.
- 충칭은 올해 충칭-쿤밍-미얀마 간의 국제 철도컨테이너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며, 신장에서는 올 4월부터 중국-카자흐스탄 자유무역지대인 '하르고스(霍尔果斯) 국제변경협력센터'가 운행돼 교역을 활성화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을 살펴보면 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이며, 중국 각 지역의 대한국 수입액 비중 역시 많은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음 (부표 2 참고).
-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 비중은 2007년 10.9%였으나, 2011년에는 9.6%로 줄어듦.
- 2007년과 비교하여 비중이 상승한 지역은 베이징, 광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등 12개 지역이며, 이 중 충칭, 쓰촨과 허난의 상승폭이 1-4배로 매우 큼. 대한국 수입액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신장과 광시임.
- 그러나 싼훙시장으로부터의 수입액 증가에 따라 대한국 수입액 비중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싼훙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가 원유 등 자원수입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한국의 비중 감소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임.

마.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입 증가율

- 중국이 무역균형을 위해 수입 확대 정책을 펴며 따라, 많은 지역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웃돌고 있음.
- 2011년 중국 전체의 수입 증가율은 23%로 수출 증가율보다 27%포인트 높았음(부표 3 참고).
- 지역별로는 18개 성·시·자치구의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초과하였으며, 이 중 대다수가 연해지역이었음.
- 이 같은 수입의 빠른 증가는 소비 활성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상품 수요 확대, 전략적 자원 비축 제도 실시, 수입담보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 제공, 수입창구 다변화 등에 기인한 것임.
- 광둥의 경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검역소에서 통관속도 업그레이드, 대중상품 안전공급 등과 관련된

18가지 조치를 내놓음.¹⁰⁾

- 희토류 같은 중요한 자원에 대해 중국정부는 비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바오강희토(包鋼稀土)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희토류 업체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희토류 비축을 하고 있음.

3. 평가 및 시사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수출 주도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 중이나, 대외교역은 여전히 소비, 투자와 더불어 경제성장의 3대 엔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의 유럽 재정위기로 중국의 무역수지가 대폭 줄어들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8%로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2010년에 4%, 2011년에는 2.8%까지 떨어졌음.
- 그러나 신흥시장 개척의 효과가 나타나고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면 중국의 무역흑자도 다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그렇지만 중국이 무역흑자 감소를 통해 점차적으로 무역균형을 실현하려 하기 때문에 과거의 8%대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음.¹¹⁾
- 최근 발표된 문건들에서도 중국정부는 대외교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의 대외교역정책 전환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중국의 대외교역 자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대내적으로는 제조업의 급속한 임금 상승과 인력난으로 노동집약형 임가공 무역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위안화 절상 압력이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음.
- 또한 가공무역이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서비스 무역의 발전이 더디며, 주문자위탁생산(OEM) 제품 수출에 치중되어 있고 지역격차가 큰 문제 등 대외교역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갖고 있음.

■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을 비롯한 일부 산업을 동부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수출과 투자 양 측면에서 모두 중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을 검토해볼 수 있음.

10) 中國國門時報(2011. 12. 16), 「五項措施服務廣東擴大進口戰略」.

11) IMF는 5, 6년 내에 중국의 무역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孫學工(2012. 3. 22), 「중국의 경제 현황과 전망-양회 결과를 중심으로」, 2012년 제2회 한중 경제포럼 발표자료.

- 향후 중서부지역이 가공무역의 중심지가 될 전망인바 이 지역에 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함.
- 그간 한국의 대중 부품소재 수출은 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중국 로컬기업을 겨냥한 수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중서부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우위가 있으며 토지, 세금 등의 면에서 정책적 혜택이 있으므로 이 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물류여건이 동부지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으며 고급 인재가 부족하다는 취약점이 있기에, 관련 조건 · 환경을 잘 살펴 진출해야 함.

■ 중국은 내수확대와 무역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며, 특히 지역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

- 소비시장 규모가 크고 산업구조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동부 연해지역에는 소비재와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야 함.
- 최근 대한민국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허난, 충칭, 쓰촨 등 중서부지역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함.
- 특히 도시화와 내륙지역 발전 가속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 증가로 경유나 아스팔트 등의 석유제품, 전자재와 건설장비 등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관련 제품의 수출을 늘려야 함.

■ 향후 글로벌 수출시장에서는 한·중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전망이므로,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함.

- 한·중 간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중국기업과 한국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점점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큼.
- 이에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KIEP**

부록

부표 1.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무역액 추이

지역	무역액(백만 달러)					무역액 증가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베이징	82,118	95,086	86,771	110,458	128,550	16.1	15.8	-8.7	27.3	16.4
톈진	75,715	86,640	72,068	91,658	111,743	12.3	14.4	-16.8	27.2	21.9
허베이	34,490	50,618	40,244	61,826	84,088	46.7	46.8	-20.5	53.6	36.0
산시성	15,195	20,140	9,286	13,854	16,264	56.3	32.5	-53.9	49.2	17.4
네이멍구	9,155	10,455	9,404	11,578	14,829	48.0	14.2	-10.1	23.1	28.1
랴오닝	65,139	82,312	69,178	94,704	112,312	24.3	26.4	-16.0	36.9	18.6
지린	11,302	13,611	11,853	16,906	22,988	29.9	20.4	-12.9	42.6	36.0
헤이룽장	18,417	20,425	13,342	18,296	25,066	30.8	10.9	-34.7	37.1	37.0
상하이	274,023	313,993	273,134	365,089	432,862	23.9	14.6	-13.0	33.7	18.6
장쑤	372,403	430,492	365,831	498,705	581,337	24.6	15.6	-15.0	36.3	16.6
저장	199,256	242,293	210,323	287,049	351,302	24.5	21.6	-13.2	36.5	22.4
안후이	15,723	19,745	15,455	23,414	30,342	28.3	25.6	-21.7	51.5	29.6
푸젠	75,274	86,762	81,231	110,557	134,576	15.8	15.3	-6.4	36.1	21.7
장시	10,317	15,171	13,568	20,718	28,115	42.3	47.0	-10.6	52.7	35.7
산둥	140,928	187,388	162,868	224,622	284,081	27.3	33.0	-13.1	37.9	26.5
허난	14,226	19,932	15,025	19,963	35,588	28.8	40.1	-24.6	32.9	78.3
후베이	15,290	21,218	17,617	25,984	33,676	26.5	38.8	-17.0	47.5	29.6
후난	10,212	13,601	11,598	15,592	20,086	28.0	33.2	-14.7	34.4	28.8
광둥	652,386	716,957	628,691	815,381	957,662	20.4	9.9	-12.3	29.7	17.4
광시	10,487	14,924	13,489	19,359	32,271	37.8	42.3	-9.6	43.5	66.7
하이난	7,073	9,598	8,533	10,347	13,454	108.2	35.7	-11.1	21.3	30.0
충칭	7,157	9,076	7,715	11,842	24,515	34.8	26.8	-15.0	53.5	107.0
쓰촨	13,732	19,950	21,555	26,407	39,137	28.7	45.3	8.0	22.5	48.2
구이저우	3,193	4,812	2,738	3,435	4,920	44.4	50.7	-43.1	25.5	43.2
윈난	8,781	9,345	7,429	10,284	12,276	38.1	6.4	-20.5	38.4	19.4
티벳	317	349	289	589	1,102	39.0	10.1	-17.2	103.8	87.1
샹시	8,229	10,557	8,640	11,680	14,032	18.9	28.3	-18.2	35.2	20.1
간쑤	5,780	6,517	4,366	7,285	7,799	30.7	12.8	-33.0	66.9	7.1
칭하이	679	811	718	818	761	-27.5	19.4	-11.5	13.9	-7.0
닝샤	1,964	2,583	1,978	2,567	2,809	21.7	31.5	-23.4	29.8	9.4
신장	15,458	24,974	16,002	21,302	29,913	51.3	61.6	-35.9	33.1	40.4
중국 전체	2,174,416	2,560,338	2,200,940	2,952,268	3,588,459	23.5	17.7	-14.0	34.1	21.5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2.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대한민국 무역액 비중 추이

지역	대한민국 무역액이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한민국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베이징	8.60	8.53	8.40	8.80	10.07	11.37	10.77	10.89	10.48	11.48
톈진	17.23	16.28	15.96	15.57	15.66	24.41	21.25	19.06	18.63	19.36
허베이	8.45	9.67	6.23	5.30	4.67	4.77	3.91	4.72	3.11	2.29
산시성	7.72	8.22	7.22	7.29	6.33	1.99	2.92	2.12	1.38	2.16
네이멍구	4.72	5.35	7.09	3.96	4.15	0.62	0.61	0.74	0.25	0.27
랴오닝	11.46	10.56	8.86	7.76	8.05	9.08	7.44	7.46	6.18	6.40
지린	8.10	5.78	5.18	4.19	3.44	2.85	2.17	2.20	1.79	1.51
헤이룽장	3.53	2.86	3.96	3.30	3.17	1.36	1.19	1.81	1.07	0.46
상하이	5.93	5.66	4.79	5.35	5.67	8.57	8.03	6.35	7.29	7.55
장쑤	10.25	10.29	10.68	10.95	9.93	16.73	16.09	18.14	18.75	15.89
저장	5.07	4.62	4.27	3.66	3.87	9.75	9.04	8.67	6.83	7.25
안후이	4.41	3.94	4.63	5.50	4.42	4.39	3.75	6.23	7.37	5.50
푸젠	5.08	5.18	4.68	4.89	4.54	9.53	9.96	7.97	7.71	6.65
장시	3.77	6.04	4.42	3.37	3.07	3.76	5.63	4.18	2.11	2.47
산둥	16.17	14.15	15.06	13.66	11.50	19.59	14.23	16.56	14.49	11.70
허난	6.87	6.76	3.39	3.82	6.85	2.52	1.57	1.87	1.94	11.18
후베이	4.98	6.64	4.20	4.47	3.82	3.51	3.66	4.34	4.73	3.95
후난	5.42	8.15	5.10	5.71	5.31	3.63	2.20	1.55	1.94	2.11
광둥	4.44	4.65	4.92	5.00	5.34	8.35	7.92	8.55	8.92	9.59
광시	3.22	2.74	1.90	1.89	1.48	2.81	1.23	1.33	1.06	0.63
하이난	1.20	1.10	0.80	1.16	0.84	0.46	0.44	0.31	0.70	0.72
충칭	2.64	2.92	3.99	4.23	3.45	2.99	4.40	4.91	6.09	6.55
쓰촨	5.37	4.50	3.47	3.44	6.09	6.89	6.65	5.25	4.30	10.43
구이저우	3.91	3.95	2.56	2.59	1.52	1.47	0.63	0.92	0.70	0.57
윈난	1.18	1.14	1.12	1.30	1.24	0.69	0.27	0.19	0.10	0.25
티벳	0.00	0.00	0.00	0.17	0.00	0.00	0.00	0.00	1.96	0.00
샹시	9.73	9.22	5.54	4.64	4.96	2.19	3.10	2.21	1.94	2.93
간쑤	6.56	3.74	1.47	2.91	3.00	0.34	0.36	0.34	0.18	0.19
칭하이	8.39	6.66	2.09	4.65	2.37	0.00	2.16	0.38	2.60	1.43
닝샤	7.08	5.30	5.61	5.34	5.73	0.98	0.69	2.03	1.87	1.89
신장	0.31	0.34	0.54	0.23	0.18	0.55	0.86	1.29	0.34	0.09
중국 전체	7.37	7.27	7.08	7.01	6.82	10.88	9.91	10.21	10.03	9.56

자료: 한국무역협회.

부표 3. 중국 31개 성·시·자치구의 수출액과 수입액 증가율 비교(2011년)

지역	수출		수입	
	금액(백만 달러)	증가율(%)	금액(백만 달러)	증가율(%)
베이징	31,142	2.6	97,408	21.6
톈진	45,182	19.4	66,561	23.7
허베이	35,897	28.3	48,191	42.4
산시성	7,689	14.1	8,575	20.5
네이멍구	6,051	38.8	8,778	21.6
랴오닝	50,596	18.9	61,716	18.3
지린	5,395	20.7	17,593	41.5
헤이룽장	9,243	8.6	15,823	61.6
상하이	198,422	14.6	234,440	22.2
장쑤	324,397	15.3	256,940	18.2
저장	239,051	19.0	112,251	30.4
안후이	15,717	43.9	14,625	17.1
푸젠	80,676	21.1	53,900	22.6
장시	16,635	40.9	11,480	28.8
산둥	134,581	22.0	149,500	30.8
허난	21,683	77.5	13,905	79.5
후베이	19,110	37.5	14,566	20.6
후난	10,979	28.1	9,107	29.7
광둥	562,913	20.5	394,749	13.3
광시	8,592	31.7	23,679	84.5
하이난	2,236	3.5	11,218	37.0
충칭	14,959	113.7	9,556	97.3
쓰촨	21,116	70.0	18,021	28.9
구이저우	2,634	30.8	2,286	60.8
윈난	6,204	21.6	6,072	17.2
티벳	945	75.7	157	204.0
샨시	6,705	19.7	7,327	20.5
간쑤	1,570	23.1	6,229	3.6
칭하이	340	7.1	421	-15.9
닝샤	2,015	29.8	794	-21.8
신장	13,892	11.0	16,021	82.4
중국 전체	1,896,570	20.3	1,691,889	23.0

자료: 한국무역협회.